

[사회]

못말리는 한국 엄마들... 한살바기에게도 영어 교육

보육시설 특별비 월 평균 1만8천원 지출

우리나라 부모들은 영유아(0세~만5세)에게 1인당 월 평균 약 1만8천원의 특별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이미화 연구위원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영유

아 보육시설 1천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생후 만 1년이 안 된 0세 영아도 외국어·음악·한글 등 특별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유치원 교육

과정 외에 특별활동을 하는 보육시설은 95.4%이며, 이 중 절반을 넘는 53%가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받았다.

특별활동 실시 분야별로는 외국어가 24.3%로 가장 많았고 ▲레고·폰테소리와 같은 교구 이용(23.9%) ▲체육(17.1%) ▲음악(10.0%) ▲미술(9.8%) ▲과학(4.9%) ▲한글(4.

■연령별 특별활동 실시비율 (%)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교구이용	기타
전체	9.8	10.0	17.1	4.9	1.7	4.5	24.3	23.9	3.8
만0세	8.0	12.4	15.0	2.6	-	8.0	18.6	23.0	12.4
만1세	11.6	9.2	20.1	1.9	3.5	3.9	17.6	31.0	4.1
만2세	10.9	7.7	19.6	2.9	1.0	3.9	23.1	28.6	2.3
만3세	10.1	8.7	18.0	5.2	1.4	3.7	26.5	23.5	2.8
만4세	10.0	11.0	18.0	6.0	1.7	3.7	26.2	19.3	4.1
만5세	9.6	12.4	17.8	6.0	1.9	3.7	25.9	18.3	4.6

5%) ▲기타(3.8%) ▲수학(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학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0세부터 실시돼 특별활동 시작 연령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세의 경우 교구 이용 프로그램이 23.0%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체육·음악·미술 등이 뒤를 이었다.

보육시설의 평균 특별활동 수는 3개. 특별활동 1개당 비용은 평균 1만5천591원, 영유아 1인당 월평균 특별활동

지출비는 약 1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싼 특별활동비는 12만원(외국어), 가장 싼 활동비는 1천원(기타 활동)으로 드러나 과목별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요구’(27.1%)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24.4%)가 뒤를 이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교수단체도 입시정책 반발

학생부 반영비를 확대, 기회균형할당전형 도입 등 정부 입시정책을 둘러싼 반발 움직임에 각 대학 총장, 입학처장들이 이어 교수단체까지 가세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류진준 경북대 교수)와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최영철 단국대 교수)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입시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초청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학문의 수장인 대학 총장들을 우리 사

회의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폄박하는 집단으로 표현했다”며 “정치적 권력으로 학문의 존엄성과 교편을 훼손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청와대 토론회에서 정부가 공개한 ‘기회균형할당전형’ 도입방안에 대해 “교육현장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급조된 대중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내신반영비율 50%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열린 광주지방경찰청 개청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청사 정문 앞에서 헌관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경호 TBN 교통방송 광주본부장·안순일 광주시교육감·신상규 광주지검장·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박광태 광주시장·이택순 경찰청장·하옥현 광주경찰청장·마형렬 광주상의회장·조내국 국정원 광주지부장·서길원 육군 31사단장·양성철 전남경찰청 차장. /위직량기자 jwli@kwangju.co.kr

광주·전남 지하수 22% ‘오염수’

지난해 6.6% 비해 급증...수질개선 미흡

광주·전남 지역 지하수 오염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나, 수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83개·하반기 85개 등 모두 168개 지점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2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6%(38개 지점)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지난해(6.6% 초과) 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9.4%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지역별로는 순천 10곳, 광주 9곳, 여수 8곳, 목포 7곳, 제주 3곳, 나주 1곳 등이다.

수질기준 초과율은 2004년 20.5%, 2005년 6.6%, 2006년 22.6%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검사시 모두 초과한 지점은 9곳

으로 오염된 지하수의 수질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도별로는 음용수의 7.7%, 생활용수의 33.3%, 농업용수의 25%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주로 일반세균과 질산성질소·대장균군의 수치가 높았다.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오염된 지하수는 없었다.

환경청 관계자는 “검사결과 미생물과 질산성질소 오염이 전체 초과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분뇨와 축산폐수, 질산성 비료가 원인”이라며 “오염방지시설의 부재와 시공 등 관정 자체의 결함에 의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경찰청 개청...본격 업무 돌입

하옥현 청장 “광주 특색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광주시의 치안을 담당할 광주지방경찰청이 3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택순 경찰청장·하옥현 광주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와 박광태 광주시장·강박원 시의회 의장·안순일 시교육감·신상규 광주지검장·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이택순 청장은 치사를 통해 “인권·민주 도시 광주에 창경(創警) 62년 만

에 독립 경찰청이 오랜 염원 끝에 개청하게 됐다”며 “육동자로 출발하는 광주청이 문화·인권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치안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민주화와 자유의 물결이 넘실댈수록 법질서에 대한 아쉬움이 늘 남는다”며 “광주경찰이 시민의 빛으로, 민주·인권 경찰로 태어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옥현 광주경찰청장은 기념식사

에서 “광주만의 지역 특색에 맞는 경찰 행정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감동, 빛의 경찰’을 기치로 내건 광주청의 조직은 6개 과 3담당관실이며, 경찰특공대와 전경대 등 4개 직할대와 동·서·남·북·광산서 등 5개서 20개 지구대로 구성됐다. 인원은 5개 경찰서를 포함, 모두 2천737명에 이른다.

광주경찰청은 당분간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건물을 사용하며, 오는 12월 광산구 소촌동 신청사 건립 후 이전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산 필요해요 7월 4일 (음 5월 20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21~28℃
목포	흐리고 비	22~26℃
여수	흐리고 비	21~25℃
순천	흐리고 비	21~26℃
해남	흐리고 비	21~29℃
영광	흐리고 비	21~27℃
보성	흐리고 비	21~26℃
곡성	흐리고 비	20~26℃
담양	흐리고 비	20~29℃
고성	흐리고 비	21~27℃
진안	흐리고 비	21~26℃
완주	흐리고 비	21~28℃
장흥	흐리고 비	20~28℃
강진	흐리고 비	19~42.3℃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북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4:45 썰물 < 10:01
목포 밀물 > 16:47 썰물 > 22:02
여수 밀물 < 11:30 썰물 < 05:33
여수 밀물 > 17:26 썰물 > 17:26

▲해돋이 05:23 ▲해질 19:51 ▲달돋 22:32 ▲달질 08:4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날씨						
최저/최고	22/29	21/26	22/27	21/29	21/27	22/26

전남 호우 예비특보 최고 80mm 비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4일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전을 기해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호우예비특보는 12시간의 강수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내

려진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30~80mm이며, 광주 등 내륙 지방은 10~40mm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이날 하루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일기예보 '131 서비스' 전산오류 4시간 '먹통'

장마철, 일기예보 안내전화(131)가 4시간 가량 다문화 이용자들의 화의전화가 빚뻐졌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ARS 장비를 운영하는 KT의 서버 이상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일기예보 안내전화의 전국 연평균 통화량은 7천500만 통으로, 하루 평균 사용 건수는 20만 통에 달한다. /김여울기자 wool@

'김창룡 저격 사건' 50년만에 기록 공개

국가기록원은 '김창룡 저격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50년 만인 4일부터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일반인에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생산한 형사사건기록 70여 건, 법원 판결문 7건, 사형집행 종료보고 2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창룡 저격사건은 육군 특수부대장인 김창룡 소장이 출근길에 피환들의 총탄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다. 수사결과 김창룡의 옛부하였던 허태영 대령 등 4명이 검거,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7월 2일 필수요약해설 + 단원문제해설

주택관리사

광주고시학원

문의: 227-8883

삼성빌딩 임대

[관리사무실] ☎02-529-3110

국내영고시학원 여름방학특강

무엇을 공부할지 모르겠는가? http://www.nseyoung.com

시간장: 화성의 학습 환경구속

국내영고시학원

수업시간: 10:00 ~ 12:00

수업장소: 화성의 학습 환경구속

수업시간: 13:00 ~ 15:00

수업장소: 화성의 학습 환경구속

수업시간: 16:00 ~ 18:00

수업장소: 화성의 학습 환경구속

☎ 529-0090